

27년만의 '의대 증원' 계획대로...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정부, 이달 말 의대증원 '마무리' 수순...의료계, 재항고 전방 대학들, 학칙 개정 속도...의대교수들, '휴진 확대'로 맞설 듯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27년 만에 추진한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들의 복귀를 끌어낼 정부의 '묘책'이 주목된다.

◇ 의대증원 최종 확정 '초읽기'=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

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뤄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 의사들 '휴진 확대' 등 검토=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려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컸었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대의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

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정부, 당분간 유화책 이어갈 듯=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경책과 유화책을 함께 쓰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화를 제외한 뒤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절차를 중단한 상태인데, 이달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 중단했던 '3개월의 사면허 정지' 행정처사를 다시 밝으며 압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행정처분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강경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지 못한 채 의료계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 많다.

따라서 정부는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 '회유책'을 내놓으며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한 전공의 중에서는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눈길에 부담되거나, 행동을 되돌릴 명분이 없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졌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치한 3달째여서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고연차 레지던트들을 구제하거나, 수업거부 장기화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원서 접수 수를

취주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끝내 복귀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을 '전문 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의사 중 전문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지역 의대교수들 "의정 갈등 더 깊어질 것"

상급병원 비대위, 당혹...전공의·의대생 복귀 회의적 대책마련 준비 2025년 의대 모집 정원, 전남대 150명·조선대 163명 사실상 확정

광주지역 의대교수들은 법원에서 의대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항고가 기각되자 의정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법원 결정에 따라 각각 150명, 163명으로 정한 2025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사실상 확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답답·착잡하다=광주지역 상급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은 법원 판단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인용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다. 이번 결정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의대교수들은 의정갈등의 해결이 묘연해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전남대 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17일 오후 의대교수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남대 비대위 관계자는 "내심 인용되길 기대 했는데 착잡하다"면서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길이 아예 막혀 버려 의정 갈등이 깊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면서 "전체 의대교수 회의를 개최해 대책마련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선대 비대위는 16일 오후 7시에 열린 전국대의교수협의회 회의결과를 지켜보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조선대 비대위 관계자는 "당장 입장을 밝히기에는 곤란하지만, 사법부 판단으로 의료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 현장 붕괴를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해 보겠지만, 이들의 의지가 강해 쉽지 않다"면서 "학교 입장을 고려해 다음주 초에 대책회의를 준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선발 예정대로=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 대상인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애초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모집정원을 각각 150명, 163명으로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는 최근 내년 선발할 의대 선발정원 150명을 골자로 한 대학 편제조정안을 법원 이사회에 제

출, 승인을 받았다.

의대정원 125명이었던 조선대는 정부에서 증원한 25명을 그대로 반영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정했다. 조선대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학칙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어 이사회 승인을 거친 상태여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인원을 제출하는 절차만 남겨 됐다. 대교협은 대학 협의체로, 대학들의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한다.

조선대는 정부가 대학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애초 정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남대학교도 내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정부가 배분한 증원 인원에서 50%를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을 개정했지만 내년엔 한해서 이같은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정원 38명 늘린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증원 규모는 75명이었으나 그 절반을 줄여 밝기로 했다.

전남대는 이같은 내용의 입학정원 변경 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대교협 취합한 의대정원을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의대정원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수업 거부 중인 학생들의 복귀가 요원해져 학사행정에 차질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 시장, 공항이전 위해 무안군민에 편지 보낸다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올해 안에 결정돼야...마음 열었으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답보 상태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무안군민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강 시장은 앞서 최근 연패에 빠졌던 이정호 광주FC 감독에게 격려의 손 편지를 썼고, 여야 원내대표에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하는 '오늘 광주'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16일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달 24일 무안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는 (군 공항을 이전해도) 소음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무안군민과 사·도민에게 보여줬다"며 "무안군민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열렸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중부권 청구 공항, 남부권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서남권 새만금 공항 등 거점공항 주도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올해 안에는 민간·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에 대한 답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어 "무안군수를 포함한 회담 등 다양한 대화 요구에 답이 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12월의 약속(광주시·전남

도의 공항 이전 추진 합의)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됐다"며 "(이전 예정지로 거론된) 현경·광운·운남면민을 포함한 무안 군민에게 편지를 전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민간·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지역현안을 풀어갈 국공위와 문체위 소속이 없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대안으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명예시민으로 추대하는 등 인원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수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검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날굴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점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분할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외제출 공고)
주식회사 오우는 2024년 5월 1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조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오우조경(가칭)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오우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분할절차에 있어 양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9 제2항에 의거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고, 주주들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주식회사 오우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62번길 43-40(양촌동)
대표이사 안낙원

전문건설업 영도양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항 및 제9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 영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영도양수 건설업의 종류
- 조경시설사업공사(일반면허)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62번길 43-40(양촌동)
2. 영도양수영도양수 : 2024년 6월 18일
3. 이해관계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1) 기간 : 2024년 5월 18일 ~ 2024년 6월 17일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62번길 43-40(양촌동)
4. 영도양수
1) 상 호 : 주식회사 오우
2) 대표이사 : 안낙원
3)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62번길 43-40(양촌동)
4) 연 락 처 : 062-654-8222
5. 양수자
1) 상 호 : 주식회사 오우조경(가칭)
2) 대표이사 : 안낙원
3)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62번길 43-40(양촌동)
4) 연 락 처 : 062-654-8222

2024년 5월 17일
주식회사 오우
대표이사 안낙원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민법 제1053(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6(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의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속재산 및 유증물 받는 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17일
- 다음 -
가. 사건번호 2024. 2년 41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나. 청구인 정재욱
다. 피상속인(사망자) 전남 무안군 창계면 복길로 211-35(복길리, 동명면)
라. 피상속인(사망자) 다. 피상속인(사망자)
(1) 성 명 : 서성태
(2) 출 생 일 : 1969.12.04. 사망일 : 2019.03.30
(3) 최후주소 : 전남 무안군 창계면 복길로 211-35 (복길리, 동명면)
마. 신고장소 :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김준형
목포시 경의로 30(유암동) 에메랄드 빌조빌딩 208호
바. 신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민법 제1053(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6(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의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속재산 및 유증물 받는 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17일
- 다음 -
가. 사건번호 2024. 2년 100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나. 청구인 정재욱
다. 피상속인(사망자) 전남 무안군 창계면 복길로 211-35(복길리, 동명면)
라. 피상속인(사망자) 다. 피상속인(사망자)
(1) 성 명 : 서성태
(2) 출 생 일 : 1971.08.18. 사망 일 : 2019.08.27
(3) 최후주소 : 전남 무안군 창계면 복길로 211-35 (복길리, 동명면)
마. 신고장소 :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김준형
목포시 경의로 30(유암동) 에메랄드 빌조빌딩 208호
바. 신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비박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산행안내
5월19일(토)
▲광주호수심 5월 18일(토) (제473차 정기산행) 재현 의원지 향방치유숲길 트레킹) 05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5시 40분 진월동 육교 밑 05시 50분 백운우재 국 06시 롯데백화점 06시 10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